

조조는 특별한 걸 볼 수 있어

독후활동지





조조는 특별한 걸 볼 수 있어

정민지 글 | 김연제 그림 | 보리
초등 3학년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 가는 섬세하고 따뜻한 동화
열한 살 조조의 좌충우돌 특별 취재기!

제5회 <개똥이네 놀이터> 창작동화 공모전 당선작

활동 1 책을 읽기 전에



이(가) 내 주위에 있을 가능성

조조 곁에 수상한 무언가가 자주 나타난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조조가 만든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겪어 본 일들을 골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상한 정체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세요!

1. 갑자기 몸이 가려워 뽀뽀 붉은 적이 있다. ☐
2.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 돌아본 적이 있다. ☐
3. 집에 혼자 있는데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
4.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내 물건 위치가 바뀌었던 적이 있다. ☐
5. 숨겨 둔 간식이 어디론가 사라진 적이 있다. ☐
6. 엘리베이터 거울에 뭔가 스친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다. ☐
7. 강아지가 허공을 향해 앙칼지게 짖는 걸 본 적이 있다. ☐
8. 갑자기 추워져 몸을 부르르 떠는 적이 있다. ☐
9.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적이 있다. ☐
10. 낙엽이 똥똥 떠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 ☐

★ 내가 체크한 수는 _____ 개

★ 열 가지 질문들을 보고 그 정체는 무엇일지 상상해서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 이(가) 내 주위에 있을 가능성 ”

★ 열 가지 질문과 비슷하게, 내가 겪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자세히 적어 보아요!

★ 조조의 취재 수첩

조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정체를 밝히려고 취재를 시작합니다.

조조가 취재 수첩에 적은 증거들을 모아 볼까요? 아래 사건들을 따라가며

누군가가 흘리고 간 증거들을 괄호 안에 적어 보고 그 정체를 밝혀 보세요!



사람 모양으로 허공에
쌓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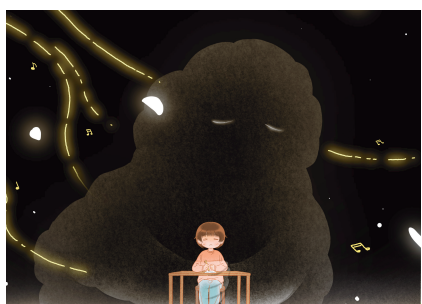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 있는 ()



혼자 계단을 내려오는
()



공공 싸맨 패딩 인간한테서
풍기는 좋은 ()



“그래, 난 ()이 맞아.
눈치챈 사람 있니?”

*다음 장은 결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 꼭 책을 65쪽까지 읽은 뒤, 이어서 진행하세요!

★ 누구냐, 넌! 정체를 밝혀라!

이야기를 읽다 보니,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그 존재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편지를 보내 왔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그래, 난 (투명 인간)이 맞아. 눈치챈 사람 있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투명하게 태어났는지.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어쨌든 나도 사람하고 똑같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어. 그럼 죽냐고? 당연하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공기로 돌아간다는 차이뿐.



—책 65쪽에서

★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조조 곁에 있던 그 존재는 바로, 투명 인간이었네요.

여러분들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투명 인간이 되어 해 보고 싶은 걸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용기는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

조조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롤러스케이트를 도전하게 되는데요.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나요? 용기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에 도전했나요?

★도전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도전한 뒤에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한 번도 안 해 봐서 두렵지만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게 있나요?



★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레크리에이션 시간, 선생님이 자기를 딱 한 문장으로 써 보라고 하자 조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 적어 보세요.

나는 _____
_____이다.

★ 마음을 들여다 보아요

조조는 반 친구 수정이와 윤해의 이어폰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모르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떠올려 적어 보아요.

조조는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여자 친구를 소개받던 날, 파스타 식당에서 느꼈던 기분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죠. 완전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까운 걸 보게 된 기분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질투 같기도 했지만, 질투라고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자기가 상대방한테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된 기분…… 수정이도 그랬을까요?

—책 97쪽에서

★ 가까운 사람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의 상황을 적어 보세요.)

★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모두 써 보아요. 상대방과 나를 이해하는 일은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

이 책에는 다양한 편지글이 나옵니다. 투명 인간이 보내는 열세 편의 편지,

조조가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아빠가 조조에게 쓴 편지처럼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가요?

누구라도 좋아요. 그림거나 보고싶거나 응원하고 싶거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에게

가